

해변의 창조, 창조적 해변

김 미 진*

《目 次》

I. 들어가며	IV. 미래의 해변
II. 해변의 창조	V. 나가며
III. 해변의 진화	

I. 들어가며

“여기로 오라, 국민들이여, 오라, 지친 노동자들이여, 기진맥진한 여인들이여, 악한 아버지들에게 벌 받은 아이들이여, 오라, 창백한 얼굴의 사람들이여 가까이 오라.”¹⁾ 역사적 사실을 문학적 문장으로 풀어내며 ‘민중의 눈높이에 맞는 사실 기술과 함께 문학성까지 가진 새로운 형식의 역사서를 창안한 프랑스 역사가 쥘 미슐레의 『바다La Mer』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그가 말하는 “여기”란 어디일까? 바로 “신의 거대한 수영장”인 바다다. “육지의 저 엘리트들, 발명하고 창조하고 생산하는, 세상을 위해 땀 흘리고 자신을 소진하는 저 민중이 끊임없이 원기를 되찾는”²⁾ 곳은 바로 바닷가다.

일찍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룬 대양 정복은 많은 프랑스인들에게는 그저 여전히 허구에서나 가능한 초인적 영웅의 모험담으로 비쳐졌다. 지배층 역시 주변의 영국이나 네덜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전임연구원

1) Jules Michelet, *La Mer*, Paris, Éditions Gallimard, 1983, p.283 : “Venez ici, nations, venez, travailleurs fatigués, venez, jeunes femmes épuisées, enfants punis des vices de vos pères — approchez, pâle humanité [...]”

2) *Ibid.*, p.328 : “[...] cette élite de la terre, cette foule du peuple inventeur, créateur et fabricant, qui sue et s’use pour le monde, reprendre incessamment ses forces à la grande piscine de Dieu !”

란드, 스페인, 포르투갈과는 달리, 해양력(Sea Power)이라는 다가오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빨리 읽어내지 못하고 대양경쟁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그 결과, 프랑스 대중들의 바다 친화도는 1936년 인민전선정부의 유급휴가제와 주 40시간 노동법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다시 말해 도시 노동자들이 여름에 대거 해변으로 몰려들기 이전까지 전근대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프랑스 대중들이 바다를 즐기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70년 전의 얘기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는 유럽 1위, 세계 2위의 레저용 선박(보트, 요트) 생산국이다. 생산의 절반을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매출액만 연간 7억7천 유로(약 1조 원)에 달한다. 생산, 유통, 각종 서비스 등 레저 선박 산업과 관련된 회사만 3천여 개, 총 매출 규모는 23억 유로(약 3조 원), 고용인원은 4만 명에 이른다.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곧 마이 요트(My yacht)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레저 선박 시장이 고속성장하고 있으니 철도, 항공에 이어 프랑스의 주력산업으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레저 선박 생산은 단지 대외 수출용이 아니다. 프랑스 행정부 내의 운송·시설·관광·해양부(Ministre des Transports, de l'Équipement, du Tourisme et de la Mer)가 펴낸 2005년 레저선박통계(La Plaisance en quelques chiffres)에 따르면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레저 선박 등록증 발급이 23,395 건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레저 선박을 새로이 등록한 선주(船主)들의 프로필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사회계층에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962년부터 2001년까지 레저 선박 면허 취득 수가 1,850,000건에 달하고, 2001년 한 해 동안만 85,500명의 사람이 면허를 취득한 것만 보아도 수상레저스포츠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

그러나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낙후된 해양의식의 결과로 프랑스의 해변은 오늘처럼 각광받는 레저 활동 공간과는 거리가 꽤 있었다. 예로 현재 세계적인 네임 벨류를 가지고 있는 꼬뜨 다쥐르(Côte d'Azur)의 유명한 해변들과 유럽 각국, 특히 영국과 독일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북쪽 노르망디 해안의 도빌(Deauville), 에트르타(Étretat), 옹플뢰르(Honfleur) 등의 바닷가는 어촌 마을 혹은 사략선들의 근거지였다. 그리고 1860년, 미술레가 『바다』를 쓸 때까지만 해도 해변은 경제력이 있는 극소수의 귀족과 부르주아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19세기 중반까지의 많은 문학텍스트와 회화 작품이 이를 증언해준다. 오늘날의 '피서객(estivant)'이라는 말이 1920년⁴⁾에서야 등장했다는 역사적 기록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철저히 버려진 땅에서 특권계층의 휴양지로, 그리고 다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대중적인

3) www.mer.equipement.gouv.fr에서 참조

4) 필립 아리에스 외 지음, 전수연 옮김, 『사생활의 역사 4』, 서울 : 새물결, 2002, 340면

해변으로 진화를 거듭해 온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 해변의 역사는 어떠한가? 불행하게도 그 출발에는 경제수탈이라는 아픈 과거의 역사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 1930년 인천 송도유원지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는 최초의 인공백사장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을 비롯, 그보다 앞서 1913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다고 하는 부산 송도해수욕장 역시 철저히 일본인 해수욕객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남녀가 함께 바닷물에 벗은 몸을 담근다는 것은 상스럽기 그지없는 추태로 간주되었다. 결국 오늘날의 해수욕은 외래문화라 해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약 90여년이 흐른 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2005년 한 해 전국 해수욕장 입장객이 1억 1169만 4천 명, 총 소비지출규모만 7조 7천억에 달한다고 한다.⁵⁾ 해변, 해수욕장이 하기 주요레저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가. 그런데 2006년 현재 351개소에 달하는 해수욕장들이 과연 휴가객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물론 해양수산부의 바람대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해수욕장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⁶⁾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해변이 관광자원이기에 앞서 국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휴식레저공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해변개발관리 정책을 입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변이 어떤 곳이고, 앞으로 어떤 곳으로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드물게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바다와 불편한 관계 — 무관심과 홀대 — 에 있었던, 그리고 해변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끊임없이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프랑스의 해변을 살펴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프랑스 해변의 역사를 통해 해변과 인간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앞으로 또 어떠한 관계로 발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II. 해변의 창조

“바다에는 회복을 위해 육상동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 풍부하게, 변함없이,

5) <http://momaf.news.go.kr>에서 참조

6) *Ibid* :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1억1169만4천명이 해수욕장을 찾아 1인당 하루 평균 지불의사액이 약 12만원, 총 지출액은 13조4139억원 정도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1인당 6만9천원, 총 7조7천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용자들의 실제지출액(6만9천원)이 지불의사액(12만원)의 57.5%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해수욕장에 대한 서비스 및 환경이 개선된다면 실제적인 경제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깨끗하게 저장되어 있다”⁷⁾는 미슐레의 주장 —실은 1753년 영국의 브라이튼(Brighton)에 해수욕치료 요양원을 세움으로써 해변 개발 붐을 일으키게 되는 영국 의사 리처드 러셀(Richard Russell)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서 보듯이 초기의 해변 개발은 인류의 생명력 회복이라는 명제로부터 시작된다. 1824년 베리 공작부인(Duchesse de Berry)⁸⁾이 프랑스 최초로 해수욕장이 만들어진 디에프(Dieppe)⁹⁾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프랑스 연안의 해변은 쓸모없는 땅 끝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있으나마나 한 공간이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난파 소식과 애달픈 눈물만이 가득한, “이별의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한탄”¹⁰⁾의 공간이었다. 그러던 공간이 귀족과 부르주아들의 “산책과 대화의 장소”¹¹⁾로 변한 것은 “물과 인간의 육체 사이에 전대미문의 새로운 관계”¹²⁾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바로 해수(海水)의 의학적 효능이 발표되면서부터다. 온천욕과 더불어 신경 계통의 각종 질병에 바닷물이 효험이 있다는 옛 이론을 바탕으로 러셀 박사는 그 치료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논문으로 펴내고, 직접 요양원을 차려 시술에 나선다. 영국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해수치료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체 귀족 사회로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물론 너나없이 그 유행에 편승하려는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해수치료 요양원 건설, 그리고 철도망이라는 인프라 구축이 없었더라면, 해변은 더 오랫동안 유기(遺棄) 상태로 방치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수욕이라는 생소한 치료법이 사람들을 해변으로 불러들이기 전까지 해변은 인간에게 어떠한 공간이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한마디로 해변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라는 그 고유한 정체성 탓에, 바다도, 그렇다고 육지도

7) Jules Michelet, *op. cit.*, p.283 : “Les plus précieux éléments de l’animalité terrestre sont richement dans la mer, entiers et invariables, salubres, vivants, en dépôt pour refaire la vie.”

8) 마리-카롤린 드 부르봉-씨실(Marie Caroline de Bourbon-Sicile) 공주는 1816년, 부르봉 왕조의 유일한 합법적인 후계자(루이 18세 뒤를 이을)인 베리 공작(Duc de Berry)과 결혼하여 베리 공작부인이 된다. 그러나 베리 공작은 1820년 암살당하고 만다. 7개월 후 공작부인은 유복자를 낳는다. 왕당파들에게 그 아이는 기적의 아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는 가운데 1825년 샤를르 10세(루이 18세의 동생)가 즉위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824년 베리 공작부인이 파리에서 가장 가까운 디에프 해변에서 해수욕을 시작한 것이 파리 궁정과 사교계에 어떠한 파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9) www.dieppetourisme.com에서 참조

10) Alain Corbin, *Le Territoire du Vide L’Occident et le désir du rivage 1750-1840*, Paris, Flammarion, 1988, p. 24 : “[...] la plage, lieu de la fuite, des naufrages, des pleurs nostalgiques est aussi le théâtre privilégié des adieux et des plaintes déchirantes.”

11) *Ibid.*, p.94 : “La plage est un lieu de déambulation, de conversation [...]”

12) Alain Corbin, *Le Ciel et la Mer*, Paris, Bayard, 2005, pp. 50-51 : “La mer dont je parle devient, dès la fin du XVIIIe siècle, le lieu d’un rapport inédit du corps et de l’eau [...]”

아닌, 동시에 바다의 일부분이면서, 육지의 일부분이기도 한 어중간한 공간이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바다의 혀가 쉴 새 없이 탐욕스럽게 해변을 핏아댄다. 가까운 바위를 삼키고도 모자라 금방이라도 육지 끝을 먹어버릴 듯이 달려든다. 앞쪽으로는 불확실성의 공간인 바다가, 그리고 뒷쪽으로는 행복과 기쁨, 편안함이 상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위험을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인 육지가 펼쳐져 있다. 바다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기 전까지 오랜 세월, 죽음과 삶의 상징적 경계가 되어 온 해변의 “장소성”¹³⁾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인간친화적인 공간이 아닌,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 아들, 남편을 믿을 수 없는 바다로 떠나보내야 하는 남겨진 자들의 비통한 이별, 끝나지 않는 기다림의 고통이 새겨지는 비극적 공간이었다. 이 같은 해변에 대한 관념을 우리는 문학 텍스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의 몇몇 바로크 작품을 제외한다면, 낭만주의 시대 이전 문학에서 해변(plage)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텍스트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대다수 평범한 인간과 해변의 관계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문학 속에서 해변은 철저히 부재한다. 바로크 시대 시인인 생-타망(1594-1661)의 시 「고독」에서 발췌한 다음 인용은 그동안 신화와 성서적 상징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바다와 해변에 드디어 개인이 사회적 관념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바다와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중략...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바닷가에 있다는 것은
끔찍한 폭풍우가 지나가고
바다가 고요해질 때
풍성한 머리칼의 트리톤들이
흥분한 파도 위로 몸을 일으키고는
소라 고동을 불어
그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미쳐 날뛰는 바람을
고분고분하게 할 때면!

때로 파도는 모래밭을 흩뜨리며
속삭이고 분노로 몸을 떨며
조약돌들을 가져왔다 되가져가며
제 몸을 굴리고
때로 가장자리 위로
분노한 넵툼이 해친

13) 이한석, 『영국의 해변리조트』, 부산 : 전망, 2005, 75면

익사자들과 죽은 괴물들
난파되어 부서진 배들의 잔해
다이아몬드들, 회색빛 호박(琥珀)
그리고 값비싼 수천가지 물건들을 늘어놓는다.

때로 너무나도 맑아
떠다니는 거울 같아 보인다
파도 아래로 다른 하늘들을
순간 비친다
커다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곳의 태양은 너무도 선명해
우리는 잠시
그것이 태양인지 아니면 그 이미지인지 생각하게 된다
언뜻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¹⁴⁾

고대로부터 중세로, 다시 고전주의 시대로 대물림 된 전형적인, 그래서 상투적인 느낌마저 주는 어휘들로 그려진 바다 풍경 —“분노”, “난파”, “익사”, “괴물” 그리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근거지로서의 바다—과 함께, 생-타망은 바로크 미학에 충실한 몽상적인, 환각적 체험에 가까운 바다의 접촉을 보여준다. 바다의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시 속에 강하게 남아있지만, 새로운 감성의 교류 가능성이 예고된다.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난 후, 앞서 간략히 소개한대로 1824년 베리 공작부인은 영국 왕실과 대 귀족들을 모방, 프랑스에 해수욕 문화를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자처한다. 그러나 디에프는 결코 브라이튼이 될 수 없었다. 의학적 명분과 함께 런던을 탈출하려는 영국 귀족들의 욕구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초기부터 열렬한 반응 속에 출발한 브라이튼은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¹⁵⁾였다. 그러나 디에프는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프랑스 국내에는 수요란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더라도 미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브라이튼처럼 왕가의 후광을 업고 영광을 누리려 했던 디에프는 베리 공작부인을 통해 부르봉 왕조의 도움을 얻고자 했으나 1830년 7월 혁명으로 새로 권좌에 오른 오를레앙 왕조의

14) Marc-Antoine Girard de Saint-Amant, 「La Soitude à Alcidon」 in *Œuvres complètes de Saint-Amant*[Nouvelle édition publiée sur les manuscrits inédits et les éditions anciennes précédée d'une Notice et accompagnée de notes par M. CH.-L. Livet] tome I, Paris, P. Jannet Librairie, 1995, pp.25-26

15) Alain Corbin, *Le Territoire du Vide L'Occident et le désir du rivage 1750-1840*, p.307 : “Plus évident encore le poids de la royauté sur le destin de Brighton, plus proche de Londres que Weymouth. Durant la Régence comme sous les règnes de Georges IV et de Guillaume IV, la station fait figure de seconde capitale.”

루이 필립으로부터 오히려 철저히 외면을 받는 불운을 겪게 된다. 그리하여 디에프의 해변은 오로지 외국 관광객과 급속도로 퇴락하기 시작하는 귀족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부 부르주아 지들에 의지, 번영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화위복이랄까 바로 이러한 이유로 디에프는 그 어떤 다른 해변보다도 더 빨리 제2세대 해변으로 진화할 기회를 얻는다.

실제로 브라이튼을 모방, 해수욕장을 만든 초기 해변 시설은 고급스런 요양원의 성격이 강했다. 해수욕치료 외의 시간 활용을 위해 살롱, 식당, 카페, 도서관, 카지노 등, 영국 왕실과 귀족들의 생활 방식, 행동 방식에 맞춘 위락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하루에 두 번씩 의사의 지시대로 해수욕 마차를 타고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해수를 음용해야 하는 것 이외에 그들은 다양한 시설의 내부에 머무르며 런던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요양이 필요한 귀족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갖춘 런던의 상공업자 계급, 나아가 대도시 노동자들까지 해수욕에 가담함으로써 해수욕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견뎌야 하는 고통스러운 고문에서 서서히 쾌락적인 행위로 변해간다. 그리고 그에 맞춰 해변건축 역시 인간과 바다의 다양한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완, 수정, 발전되기 시작한다.

디에프는 달라진 프랑스 국내의 정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발맞추는 동시에, 브라이튼을 비롯한 영국 해변의 귀족적인 해수욕, 다시 말해 여전히 복잡하고 거추장스런 의식(儀式) 절차를 통해 행해지는 해수욕에 갑갑함과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영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다 흥미롭고, 보다 자유로운, 그러나 고귀한 신분에 걸 맞는 화려함을 갖춘 차별화된 “열린 바다”¹⁶⁾를 추구한다. 해변을 따라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할 수 있는 본격적인 산책로의 건설, 도서 및 신문이 비치된 고급스런 탈의실 건설, 해수욕 마차가 아니라 직접 걸어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폰툰 건설, 산책을 위한 방파제의 연장 및 정비, 바다와 해변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 등 새로운 시설을 속속 갖춘다. 해수욕을 치료와 동시에 유희로 새로이 규정하고, 개인이 보다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바다와 접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감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변 공간을 빠르게 변화시켜 나간다.

III. 해변의 진화

해변을 찾는 사람들의 숨겨진 욕구를 읽어내고, 동시에 그들의 욕구를 창조해내는데 성공

16) *Ibid.*, p.295 : “[...] la beauté incite nombre de touristes britanniques à choisir cet itinéraire pour se rendre à Paris, imposent l'idée d'un luxueux établissement open sea, doublé d'un hôtel de bains de mer chauds, établi à l'intérieur de la ville.”

했다고 해야 할 디에프의 진화는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의 각 해수욕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드디어 해변 고유의 공간성—바다와 육지의 접점이라는—을 고려, 해변이 재해석, 재창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왕실과 귀족층이, 앞 다투어 개발된 유럽 해변의 절대적인 수혜자인 동시에 초기 번영에 결정적인 공로자라고 한다면, 진화된 해변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귀족 계급을 모방하는 동시에 그들을 넘어서려고 한 부르주아지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19세기 중반 이전과 그 이후의 해변 풍경이 달라진 것은 주 수요자 층의 다른 욕구, 다른 감성, 다른 기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2세대 해변에서 개인은 바다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는가? 우리는 쥘 르나르(1864-1910)의 소설 『식객L'Écornifleur』(1892)을 통해 19세기 말 크게 달라진 해변의 풍속도를 엿볼 수 있다. 소설 속 주인공 앙리는 부르주아지인 베르네 부부 집에 기생하는 작가로 부부와 함께 노르망디 해안의 탈레우(Talléhou)¹⁷⁾로 휴가를 떠난다.

베르네 부인이 (기차)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는 가죽 모자를 눌러 쓰고, 오른손에는 돌돌 만 작은 깃발을, 왼손에는 한 아이를 붙들고 있는 건넌목지기를 향해 웃어 보인다.

앙리 : 왜 그러십니까, 부인?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하세요.

촉촉이 젖은 눈의 베르네 부인이 검지로 수평선을 가리키며, 딱 두 마디 말을 한다.

<바다!>

나도 바라본다 부인의 동요에 마음 몽클해지며 그러나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화가 난다.¹⁸⁾

르나르는 위의 글에서 기차에서 내려 마침내 수평선을 발견하는 베르네 부인의 감회를 놀라움을 넘어서 가슴 몽클한 감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여름이 되면 어느 사교계 인사가 어느 해변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식의 근황이 경쟁적으로 실리는 신문을 통해, 베르네 부인은 이미 바다와 해변, 해수욕장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말로만 듣던 해변도시와 바다를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된 후 그녀의 반응은 당시 바닷가를 처음으로 찾은 수많은 부르주아지들의 반응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 이어지는 흥분을 단지 상류사회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방하려는 부르주아지의 열등감, 모방을 통한 동일화 심리로 이해해야 할까?

1세기 전에 이루어진 귀족들의 해변 러시를 훨씬 능가하는 해변의 대중화, 민주화에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요인이 숨어 있다. 바로 한 발 앞서 귀족들과 함께 해변을 찾은 화가와 작가 등이 스스로 갖게 된 바다에 대한 욕망이 그것이다. 해변을 통한 바다와의

17) 허구적 지명으로, 실제로는 노르망디 해안의 작은 항구인 바르플뢰르(Barfleur)가 그 무대다.

18) Jules Renard, *L'Écornifleur* in Simon Leys, *La Mer dans la littérature française tome II*, Paris, Plon, 2003, pp.584-585

접촉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육체적·정신적 희열을 얻은 예술가들은 그림으로, 텍스트로 그 흥분을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서서히 그러나 강하게 사람들의 뇌리에 종전과는 다른 해변의 이미지를 심어준다. 당시 해변의 풍경을 그린 회화 혹은 문학 작품들은 한편으로는 당대 풍속의 충실한 기록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풍속을 확산시키는 전도사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해변과 바다의 재발견은 예술가들 간, 예술가와 부르주아, 부르주아 간, 그리고 나아가 도시 노동자들 속으로 계속 퍼져 나간다. 프랑스 해변의 대중화에 기여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프로파간다(propaganda)와는 거리가 먼 자연 발생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우리의 주목을 끈다.

『식객』의 주인공 앙리의 말을 보더라도 해변의 발견은 도미노 식으로 사람들 속으로 퍼져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미지 하나 만들어 줄 수 없는 지중해가 나를 절망하게 한다. 피에르 로티의 글 한 페이지를 읽는 게 더 나을 것이다.¹⁹⁾

이전까지 관념적으로만 알았을 뿐, 실제로 접해보지 못했던 바다를 직접 온 몸으로 겪으면서, 바다가 작가의 내부에 일으킨 거대한 감각의 소용돌이는 언어를 찾아 헤매야 하는 작가를 절망하게 만든다. 바로 그 때문에 작가들은 자기와는 다른 타인의 탁월한 시선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계속 표현의 전투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예로 1861년 1월 15일 출판된 미술레의 『바다』를 읽고 『보바리 부인』(1857)으로 이미 유명해진 귀스타브 플로베르(1821-1880)가 1861년 1월 26일 보낸 편지를 보면 바다라는 새로운 문학적 대상 주위로 모여든 작가들의 열광, 그리고 상호 교감, 상호텍스트성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바다와 해변은 작가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며 놀라운 속도로 당당히 매력적인 문학적 소재로 거듭난다.

<여인의 젓가슴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러움...>이라는 뛰어난 구절로 끝이 나는 <모유의 바다>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희에게 엄청난 몽상을 안겨주었습니다...²⁰⁾

그 가운데 단지 바라보는 것으로, 해변에서 수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작가들도 있었

19) Ibid., p.586 : “La Grande Bleue me désespère, car je ne peux lui offrir une image de mon cru. Mieux vaudrait lire une page de Pierre Loti.” 「작가로 전업하기 전까지 해군장교이기도 했던 피에르 로티(1850-1923)는 *Le Mariage de Loti*, *Mon frère Yves*, *Le Pêcheur d’Islande*, *Roman d’un enfant* 등의 소설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다.」

20) Gustave Flaubert, *Correspondance in Œuvres complètes III*, Paris, Gallimard, 1991, pp.141-142

다. 가령 알렉상드르 뒤마(Alexandre Dumas), 트리스탕 코르비에르(Tristan Corbière), 쥘 베른(Jules Verne), 기 드 모파상(Guy de Maupassant) 등은 실제로 요트를 구입, 항해를 즐긴 요트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모파상은 1883년부터 루이제트, 벨-아미, 벨-아미 II 호(號)에 이르기까지 세 척의 요트를 차례로 소유하며 배를 ‘떠다니는’ 자신의 작업실로 삼는다. 실제로 『물 위에서*Sur l'eau*』라는 전혀 새로운 항해록—전통적인 형식의 항해 일지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상과 생각이 녹아든 에세이적인 성격이 강한 색다른 글쓰기—을 선보인다. 『물 위에서』를 통해 고백하고 있듯이 균중을 싫어하는 모파상에게 배는 “떠다니는 고독”²¹⁾의 시간을 창조하고, 그 고독의 시간은 물에서와는 다른 “공상”²²⁾을 작가의 내부로 흐르게 만든다. 본격적인 해양문학이 탄생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술의 형태로 거듭나게 된 그들의 체험이 어떻게 바다의 욕구를 대중들에게 심어주기에 이르렀는가? 바다와 해변, 해수욕 등 다양한 경로로 바다를 직접 체험한 후, 작가들의 글쓰기는 확연히 달라진다. 그 예로 1874년 프랑스와 코페(François Coppé)가 쓴 『붉은 공책*Le Cahier rouge*』이라는 시집 속에 실린 「해수욕할 때」의 일부를 살펴보자.

벨벳의 모래가 깔린 우아한 해변 위로
조용하게 규칙적으로 목격한 파도가 때린다
...중략...
유유자적한 해수욕객들의 아이들이, 부유한 집의 아이들이
...중략...
물속에 발을 담구고, 물결과 놀며 뛰어다닌다.
눈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영혼에는 행복이 가득하다
...중략...
흔히 부르듯 애지중지 자라는 그 애들이
작은 삼으로 즐겁게
황금빛 고운 모래 속에 운하와 구멍들을 판다²³⁾

“벨벳의 모래”가 깔린 “우아한 해변” 위를 즐겁게 뛰어다니며 노는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진다. 그 어떤 비극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풍경속의 아이들은 해변이 가진 특유의 순수성—해변을 거니는 성인들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가령

21) Guy de Maupassant, *Sur l'eau*, Paris, Gallimard, 1993, p.164

22) *Ibid.*

23) François Coppé, 「Aux bains de mer」 in Charles Le Goffic, *Poètes de la mer*, Paris, La Table Ronde, 1999, p.156

조약들과 조개껍데기를 주워 간직한다거나, 해변으로 밀려온 바다 생물에 대해 순진무구한 호기심을 가지는 등 퇴화적 행태를 보이기 일쑤기 때문이다—과 아주 잘 어울린다. 좀 더 뒤에 나온 에밀 베라렌(Émile Verhaeren)의 「해수욕」이라는 시에는 해변에 대한 욕구, 바다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의미장의 어휘들로 넘쳐난다.

나의 몸은
진흙과 물에 젖었지
나의 몸은
에스코(Escout)의 바람에 땀!

농익을 만큼 뜨거운 날
무리지어 저 멀리 풀밭을 지나
후미지고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났지
높게 마치 벽처럼 자란 풀들은
도로 위로 불을 켜고 다니는 눈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지.
물은 진홍색 한여름 아래 따뜻했고
빛이 한가득 안으로 쏟아져
마치 하늘에서 떨어져 푸른 물결 속에 잠긴
한 조각의 태양 같았지
...중략...
이어 치기어린 몸짓들과 돌연한 점프, 미친 듯 터지는 웃음
파문을 일으키며 물을 쳐대는 다리와 팔들이
서로 섞여 들었지
...중략...
우리는 예전처럼 신선하고 강했지
우리는 현재의 몸을 잊어버리고 있었지
바람의 부드러운 손길과 공기의 숨결만이
열린 우리들의 입술 위로
감탄 섞인 웃음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지.

자유롭고 즉흥적인 우리들의 놀이는 그렇게 열기를 더해갔다.
다채롭고 강렬한 삶을 위하여
마치 잡아먹을 듯 온 몸속으로
밀려드는 기쁨 외에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았지.
붉은 고통처럼 저녁시간이 시작될 때면
나른한 시간들은 하나씩 차츰 떨어져갔다
우리는 황금빛으로 물든 몸을 말리며
...하략...²⁴⁾

24) Émile Verhaeren, 「Le Bain」 in Simon Leys, *op.cit.*, pp.608-609

1904년에 출판된 시집 『첫 번째 사랑*Les Tendresses premières*』 속에 삽입된 시 「해수욕」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따뜻한 바닷물과 해안—인공적으로 잘 정비된 해변이 아니라, 손때 묻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해안—이 주는 해방감과, 자연과 하나 되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특별한 일체감의 묘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관능적인 쾌락이라 불러야 할 만큼 감각적인 경험을 전한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개인은 “다채롭고 강렬한 삶”, “웃음소리”로 설명되는 전혀 새로운 충만감을 느낀다. 아울러 도시 생활로 인해 단절된 자연과 해후하며 개인은 원초적인 생명력을 되찾는다.

한 세기가 채 지나지도 않아, 참아내야, 견뎌내야 하는 수고로서의 해수욕 대신, 유희, 놀이로서의 해수욕이 사람들을 해변으로 불러들이게 된 것이다. 지면 사정상 여기에 인용되는 한정된 텍스트들의 예에 대해 이러한 변화가 단지 작가 개인의 개별적인 감수성이 아닐까하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프랑스 해양시의 경우, 12,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나온 해양시—물론 이 때 해양시의 의미는 ‘바다’와 ‘바다’ 관련 어휘가 제재로 쓰인 경우다—대부분을 모아놓은 선집²⁵⁾을 시대 순으로 읽어보면, 작가들 자신이 바다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한 19세기 접어들어, 특히 중반을 기점으로 바다에 대한 욕망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시어들이 시속에 대거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침내 난 떠난다 여기 배가 있다
안녕, 즐거워하는 파리어! 안녕 무덤이여!
...중략...
난 내 기분대로 날아간다
대기가 닿자 뜨거워진 듯이 부풀고
해방된 나는 유모,
파란만장한 물결의 바다, 바다에게 간청한다!
...중략...
파도가 저기에서 나를 흔들어 채우고 저기로 나를 끌어당긴다
...중략...
황녀처럼 휘황찬란한
고혹적인 그녀[파도]가 미소를 보낸다
그 심연에 취한 나는 숨을 들이마신다
그녀의 향기로운 숨결이 나를 치유하도록
파란만장한 물결의 바다, 바다여!
...중략...
즐거라 너의 여름이 꽃피도록!
내 발 아래로 성스러운 영감의 여신이

25) Charles Le Goffic의 『바다의 시인들*Poètes de la Mer*』, Paris, La Table Ronde, 1999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녀의 숨결이 내 몸 안으로 파고들어왔다
넓은 바다, 위로하는 바다
파란만장한 물결의 바다, 바다여!²⁶⁾

노골적으로 바다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러한 목소리는 단지 테오도르 드 방빌(Théodore de Banville)에 그치지 않는다. 바다를 직접 체험한 낭만주의 세대 대부분 작가들²⁷⁾로부터 우리는 유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결국 개발 초기 당시, 왕실을 비롯한 귀족 계급의 전유물이었던 해변이 대혁명 이후 점차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지와 그 뒤를 따라 도시 노동자들에게까지 개방,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화되기 시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변의 진화를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가 활동의 증대와 함께 나아가서는 유급 휴가의 확대와 법제화—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해변, 나아가 바다와의 접촉에 대한 시각의 전반적인 변화에 문학을 중심으로 한 예술가들의 기여는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스스로 바다에 대해 열정을 가지게 된 작가들의 글쓰기야말로 관(官)이 주도하는 그 어떤 해양친화정책보다도 강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프랑스의 해변 변천사를 되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다. 특정한 시각을 상식으로 만들 수 있는 선구자로서의 예술가의 힘을, 1830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프랑스 해군공식화가(Les Peintres Officiels de la Mer) 제도²⁸⁾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26) Théodore de Banville, 『Ballade en quittant Le Havre de Grâce』, in Charles Le Goffic, *ibid.*, pp.142-143

27) 해변 변천사에 중점을 둔 나머지 여기서는 언급하지 못한 낭만주의 고유의 성향인 ‘이곳’과 ‘저곳’의 이분법적 공간 인식, 도피, 여행의 욕망 등에 관해서는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28) 이들의 주된 임무는 군항, 전함, 해전사 등을 유화, 수채화, 조각,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해군은 이들 화가들이 활동하는 3년(재선임 가능) 동안, 대양을 횡단하거나 군함 등을 상당기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해군 장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해군공식화가들은 프랑스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해양축제, 해양스포츠 행사, 해양문화관련 전시회에 초청되며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대중과 만난다.[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www.netmarine.net/tradi/pom/present.htm을 참조 바란다.]

IV. 미래의 해변

우리나라의 경우, 해를 거둬들일수록 해수욕장 이용객 수가 가파르게 증가²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바다를 두려워하고 배척하는 태도가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21세기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가 해양친화 정책을 꾸준히 진행시켜오고 있는 것도 바다를 대하는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인 경우, 국민 전체의 해양 정서는 해수욕장이라는 지역 자치단체의 관광 수익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해양자원문제로부터 해양환경, 그리고 해운, 항만, 조선, 수산업과 같은, 결국 국민 전체의 삶과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된다. 특히 해변을 비롯한 해안은 앞서 프랑스의 경우를 통해 설명한 것처럼 해양관련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바다와 접촉하는 공간으로, 친(親) 해양 정서 함양에 유리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해변, 해수욕장의 개발, 개선, 관리 정책 수립에는 온 국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가 바다를 즐겁게 찾을 수 있도록, 바다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해변은 어떠한가? 그 현실을 간략히 살펴보고 지금 프랑스의 해변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봄으로써 미래 우리 해변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의 해변은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양이라는 자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후지의 난개발과 호안도로 및 인공조립 등의 인공구조물 건설, 해사채취 등으로 단지 자연미를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백사장이 침식되는 심각한 상황³⁰⁾을 맞고 있다. 연안침식은 단순히 모래 유실의 문제가 아니라 편의의 주의적 발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해변 주변 생태계의 경고라 할 수 있다. 해수욕철이 돌아오면 여전히 부당요금, 쓰레기 처리 및 탈의실, 화장실 등의 기본 시설 미비에 대한 비판만이 언론매체를 장식한다. 그러나 해변은 길어야 두 달 정도 해수욕객들을 맞이하는 일시적인 휴식공간이 아니다. 해양수산부의 주장대로 ‘쾌적하고 안전한 4계절 국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려면 먼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휴양공간이기에 앞서 지역민들의 휴양공간이 되어야 한다. 매년 해양수

29) 해양수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한해 전국 해수욕장 총 이용객 수는 약 6천3백60만 명, 2004년에는 9천33만명, 2005년에는 1억5백32만 명, 2006년에는 1억6백52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30) 2005년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용역에 따라 이루어진 남수용, 강태순, 김무홍, 백공구, 박원경의 「한국 연안침식 모니터링의 현황과 향후계획」이라는 연구용역서를 보면 전국 229개소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178개소가 백사장 침식, 호안붕괴 등의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www.momaf.go.kr에서 참조)

산부가 내놓고 있는 우수해수욕장의 선정과정이 8월 초순부터 하순까지 현지방문 평가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6년의 경우 서른 네 개 평가대상 해수욕장 가운데 스무 개 해수욕장이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 6억 원에 달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우수해수욕장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가는 상황³¹⁾에서 이미 이들 해수욕장에 집중될 대로 집중된 해수욕객 과밀 문제는 보다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소규모 해수욕장에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4계절 휴식 공간'으로서의 해변은 해수욕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 여전히 낙후된 해양스포츠 인프라는 적극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몇 년 전부터 갯벌체험, 조개잡이 등 체험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이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지역별로 충분히 특성화되어 있지 않은데다 지속적인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의 부재로 자칫 구색 맞추기에 그치는 전시성 프로그램으로 변질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해변이 진정한 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려면 환경, 특히 이용객 편의 위주 보다는 바다의 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100년도 훨씬 더 오래전에 미술가가 남긴 『바다』의 마지막 글귀는 과연 이상적인 바다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깊게 생각하게 한다.

대지는 당신들에게 살아가라고 한다. 대지는 가진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을 당신들에게 내준다. 바다는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당신들을 잃어버린다면 바다 또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바로 바다의 정수(精髓)이고 창의적인 바다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살면 바다가 살 것이고, 당신들이 죽으면 바다 역시 죽을 것이다.³²⁾

바다는 일방적으로 인간이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자원이 아니라,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독립적인 유기체다. 그 점에서 올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두 해변관리제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여름철 피서 바우처 제도'는 먼저 일시적인 방문평가와 서면평가로 해 온 해수욕장 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제도다. 해수욕장별로 지원자를 선정하여 피서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그 대신 현장에서 직접 느낀 부당요금, 불편사항, 개선필요사항을 해양수산부 담당부서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해수욕객들의 불편사항에 좀 더 귀를 열겠다는

31) *Ibid.*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은 1.1% 증가를 기록했으나, 우수해수욕장은 2.5% 증가했다. 수해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우수해수욕장을 통계에서 제외한다면 그 증가는 9.1%에 달한다.]

32) Jules Michelet, *op. cit.*, p.328 : "La Terre vous supplie de vivre ; elle vous offre ce qu'elle a de meilleur, la mer, pour vous relever. Elle se perdrait en vous perdant. Car vous êtes son génie, son âme inventive. De votre vie, elle vit, et, vous morts, elle mourrait."

책임기관의 의지가 눈에 띈다. 또 다른 제도는 ‘시민참여관리제도(Beach Adopt Program 일명 BAP)’로 부산 해운대와 보령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내용은 각 지역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여 관할 해수욕장을 입양한 자식처럼 소중히 관리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인데, 기업은 해변청소 등 해변환경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대신 해수욕장에서 기업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지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는 이해되는 바이지만, 해양수산부 자체 예상 분석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과연 참여기업들이 해변에서 진정으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어쨌든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한 ‘시민참여관리제도’나 ‘피서 바우처 제도’ 실시 계획을 보며, 근본적인 원인 치료는 놔둔 채 그 때 그 때 소독만 하고 항생제만을 먹는 것과 다를 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보다는 정작 해변을 찾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다를 —더 넓게는 자연을— 생태 지향적 관점에서 대하는 법을 익혀나가도록 독려해야 한다. 해변과 바다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더럽힐 수 없는 곳임을 아는 순간, 해변은 더 이상 관리의 대상이 될 이유조차 없어질 것이다.

그 점에서 1985년, 환경교육재단(La Fondation pour l'Éducation à l'Environnement) 프랑스 지부가 창안해 1987년에는 유럽전체로, 그리고 2001년에는 남아프리카를 포함, 현재 36개국이 참여하는 환경 운동으로 발전된 파비용 블루(Le Pavillon Bleu, 영어명은 Blue Flag)는 좋은 전례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연안지역과 강을 낀 내륙지역에 주어지는 파비용 블루라는 명칭과 깃발은 지역의 관광·경제개발이 무엇보다 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파비용 블루는 일종의 환경인증마크로 지역의 관광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흔히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온 두 목표를 모두 성취한 드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환경교육, 환경관리, 쓰레기처리, 수질관리의 네 분야에 대해 국내 심사 위원회³³⁾, 이어 유럽 심사 위원회가 방문 조사하여 파비용 블루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정된 후, 휴가시즌은 물론 일 년 내내 현지 감찰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 파비용 블루 깃발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 깃발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프랑스 해변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눈에 띄는 몇몇 항목만을 여기서 간추리기로 하겠다. 첫째, 해수욕객 개개인의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자치단체에서 마련한 해변셔틀버스가 있는가? 둘째, 관광객들에게 저공해, 무공해 교통수단 이용을

33) 2006년 프랑스 국내 심사단 구성을 보면 파비용 블루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해수욕장(마리나 포함)의 비전을 엿볼 수 있다. 16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환경교육재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질, 환경, 안전 각 분야의 전문가, 건축, Éco-Emballage(친환경포장) 회사 관계자 등을 볼 수 있다.[www.pavillonbleu.org 참조]

장려하고 있는가? 셋째, 안전뿐만 아니라 해변정화와 타인들 존중에 관한 캠페인을 해수욕객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가? 넷째, 지역 면적 대비 자연보호구역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다섯째,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자연과 역사 유산 보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여섯째, 오수(汚水)방출 감소를 위한 관련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가? 일곱 번째, 해변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여덟 번째, 지역 환경보호와 관련된 안내책자를 가지고 있는가? 아홉 번째, 성수기 때 환경관련 테마로 적어도 다섯 개 이상의 캠페인(전시회, 연주회, 아동 대상 놀이, 해변용 재떨이 배포 등등)을 기획하고 있는가? 열 번째, 노약자와 장애인이 해변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간단히 소개한 이들 몇몇 항목만 보더라도 파비용 블루는 단지 질적으로 우수한 환경의 해변임을 증명하는 관광용 인증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해변은 단지 돈을 벌거나 혹은 돈을 내고 마음대로 쓰면 되는 공간이 아니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소중한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인 것이다. 결국 지금 프랑스의 해변은 생태지향주의라는 미래의 행동방식이 제 때 학습되고 실천되는 교육의 장(場)으로 그 어느 해변보다 한발 앞서 새로이 진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V. 나가며

유사 이래 강, 들, 산, 바다, 그리고 해변 이 모든 자연이 인간을 위해 끊임없이 개발되어 왔다. 특히 해변의 본격적인 개발은 다른 자연공간에 비해 특별하다.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해수욕치료법은 해변을 치료능력을 가진 기적적인 공간으로 바라보게 했다. 이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방치의 상태에 있었던 영토의 극적인 부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력 회복이라는 바닷물의 미덕은 곧 물이라는 요소와의 접촉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즐거움, 관능에 가까운 감각적인 쾌락으로 진화되었고, 이런 진화에 대중보다 한 발 앞서 해변의 즐거움을 누린 많은 예술가들의 공로는 생각보다 지대하다. 왕과 대귀족의 요양원에서 대중들의 놀이터가 되면서 해변의 모습 역시 변화되었는데, 점점 더 많이 밀려드는 해수욕객들과 함께 소비문화가 해변을 급속히 잠식해 들어가게 된다. 사람들과 함께 흘러들기 시작한 돈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재투자되었고, 해변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게 된다. 제2세대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탄해하며 발견했었던 해변의 미덕은 이제 점점 더 찾아보기가 힘들어진다. 결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업주의, 소비지향주의 아래 해변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병든 해변에서 인간은 결코 활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19세기 유럽 해변이 보여주듯이 해변이 살아야 사람이 되살아날 수 있다. 그 점에서 다각적인 해변환경 보호정책의 시급한 수립과 성실한 이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간 편의 위주로 환경을 왜곡, 변화시키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프랑스의 파비용 블루 프로그램에서 보듯 인간과 해안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서로 배우고, 전하고, 실천할 때인 것이다.



참고문헌

- 이한석, 『영국의 해변리조트』, 부산 : 전망, 2005
- 콜린 존스 지음, 방문숙·이호영 옮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프랑스사』, 서울 : 시공사, 2001
- 필립 아리에스 외 지음, 전수연 옮김, 『사생활의 역사 4』, 서울 : 새물결, 2002
- 폴 라파르그 지음, 조형준 옮김, 『게으를 수 있는 권리』, 서울 : 새물결, 2005
- Alain Corbin, *Le Territoire du Vide L'Occident et le désir du rivage 1750-1840*, Paris, Flammarion, 1988
- _____, *Le Ciel et la Mer*, Paris, Bayard, 2005
- Charles Le Goffic, *Poètes de la mer*, Paris, La Table Ronde, 1999
- Gustave Flaubert, *Correspondance* in *Œuvres complètes* III, Paris, Gallimard, 1991
- Guy de Maupassant, *Sur l'eau*, Paris, Gallimard, 1993
- Jean Delumeau, *La Peur en Occident*, Paris, Fayard, 1978
- Jules Michelet, *La Mer*, Paris, Éditions Gallimard, 1983
- Laurent Manœuvre, *Boudin le ciel et la mer*, Paris, Herscher, 1997
- Marc-Antoine Girard de Saint-Amant, 「La Soitude à Alcidon」 in *Œuvres complètes de Saint-Amant*[Nouvelle édition publiée sur les manuscrits inédits et les éditions anciennes précédée d'une Notice et accompagnée de notes par M. CH.-L. Livet] tome I, Paris, P. Jannet Librairie, 1995
- Simon Leys, *La Mer dans la littérature française tome I, tome II*, Paris, Plon, 2003

관련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momaf.news.go.kr>

www.netmarine.net/tradi/pom/present.htm

www.pavillonbleu.org

www.mer.equipement.gouv.fr

www.dieppetourisme.com



일반논문

산업용가스산업의 발전과 시장구조의 변화 · 유일선

새로운 중심항만(Hub Port)을 고려한 정기선
최적항로 결정을 위한 혼합정수계획모형 · 조성철 신유정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성별영향평가 · 朱東範

미국의 해양행정: 특성과 전망 · 최성두



